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 군국의 어머니

『조선공론』 지면을 통해 본 재조(在朝)일본인 사회의 젠더 담론*

권숙인

1. 들어가기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한반도에 형성되었던 일본인 이주민 사회의 젠더 담론을 분석한다. 특히 일본인 커뮤니티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정착 초기단계부터 전시 상황이 심화되는 1930년대 후반 이후까지의 담론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당대 일본인 사회의 상황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식민 통치와 젠더 역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서구 식민지에 국한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중요한 비교문화적 사례를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심화하는 데

권숙인(權肅寅)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 이주와 이산, 여성과 이주/이동,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재일한인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연구로 『젠더와 일본사회』(공편),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재일한인 1세 여성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230>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식민자 커뮤니티(colonial settler community)로서 재조일본인 사회에 대한 연구를 다각화함으로써 일본의 제국 경험과 일제강점기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식민제국은 피식민 사회를 통치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식민 본국의 인력을 식민지로 이주시켰고, 식민지에 크고 작은 식민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식민자 커뮤니티는 식민지배의 현지 실행자(agents) 집단으로 현지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인종과 민족, 젠더와 계급이 얽히는 역동적인 장이 되었다. 특히 서구의 제국/식민역사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들은 제국의 변방으로서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음을 강조한다.¹ 유럽인 식민자들의 성적관계나 가족생활은 종종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안”²으로 작용했고,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젠더는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항상 작동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구성요소”³였다.

식민지 통치에서 젠더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식민 본국에서 이주한 여성에 대한 규율과 통제 문제였다. 유럽 국가가 지배한 대부분의 식민지에서는 유럽인 이주자의 성별불균형이 극심했고 식민지가 안정되고 나서야 백인 여성들이 비교적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여성적 도덕’의 교화는 식민지 경영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식민자(colonizer) 여성의 도덕은 곧 제국의 명예와 위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성과 여성이 주로 관장하는 친밀한 영역(the intimate)에 대한 규율은 식민제국의 통치에 핵심 요소가 되었다.⁴

1 Philippa Levine, *Gender and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Ann Laura Stoler, “Rethinking Colonial Categories: European Communities and the Boundaries of Rul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3(1), 1989;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wer: Race and the Intimate in Colonial Ru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 Stoler, “Rethinking Colonial Categories,” p.323.

3 Levine, *Gender and Empire*, p.11.

4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부 여성 식민자」, 『사회와 역사』 제103輯, 한국사회사학회 2014; S. Dagut, “Gender, Colonial ‘Women’s History’

서구의 식민지배와 젠더 정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온 것과 비교해 재조일본인 사회의 젠더관계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고 연구 주제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이형식의 리뷰를 보면 2000년 이후 재조일본인이란 주제는 “과도하게 주목”⁵ 받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혹은 젠더와 관련해서는 몇몇 유력 여성활동가나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 개별 여성에 대한 사례 연구나 구술 연구,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여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 여성을 포함한 재조일본인 여성의 생애사에 주목한 몇몇 연구가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⁶ 특히 기존 연구 중에 재조일본인 사회 내의 젠더 규범이나 젠더 역학 자체를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주제나 방법 등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는 바바라 브룩스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⁷ 브룩스는 만주사변 이전까지의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 기사에 대한 독해를 통해 조선과 만주의 일본인 사회에 팽배했던 젠더 담론을 분석하고 그 비교문화적 함의를 성찰한다. 브룩스의 연구는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작동하던 젠더 규율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선구적인 시도라 할 수 있으나 그 자신도 “시론적”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일본인 사회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초기 단계에 진행된 젠더 담론과 규율에 대해서는 『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에 실린 몇 편의 논문도 있다.⁸ 이 저작은 1908~1911년 사이에 발간된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Distance: Middle-class British Women in Later Nineteenth-century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6(3), 2000; Harald Fisher-Tiné, “White Women Degrading Themselves to the Lowest Depths’: European Networks of Prostitution and Colonial Anxieties in British India and Ceylon ca. 1880-1914,” *The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40, 2003; Levine, *Gender and Empire*; Stoler,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wer*.

- 5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 37, 2013, 270쪽.
- 6 이형식의 리뷰 논문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교육사, 여성사, 언론사 등의 영역에서 재조일본인을 연구한 한국, 일본, 미국 학계의 연구물들을 비교적 충실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조일본인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리뷰로는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을 참조할 수 있다.
- 7 Barbara J. Brooks, “Reading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 Gender and Bourgeois Civility in Korea and Manchuria before 1932,” in Barbara Molony & Kathleen Uno eds., *Gendering Modern Japanese Histo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5.
- 8 김효순, 「『조선』의 〈문예란〉에 나타난 도한 일본여성의 현실」; 송혜경, 「『조선』에서의 ‘가정’의 역할과 ‘한인(韓人)’가정에 대한 인식」; 이승신, 「재한 일본어 미디어와 도한 일본인 여성」, 식민지 일본어문

『조선』(朝鮮)의 문예란을 공동 독해한 결과물로 보이는데, 분석적 균형이나 논문의 완결성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당대 일본인 사회의 젠더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고찰해야 할 몇몇 주제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문학 텍스트 분석에 근거해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가정주부, 예기, 작부, ‘가정부’(女中) 등, 역사적 자료를 통해 접근하기 매우 힘든 여성들의 내면과 심리적 갈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권숙인의 연구⁹는 중산층 도시여성의 생활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식민자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과 함께 재조일본인 사회의 보수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제약’도 살펴보고 있으며, 일본제국의 팽창이 제국의 주변부로 이식시켰던 하층의 일본여성에게 대해 고찰한 바¹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젠더 지형을 고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조선공론』 지면을 통시적으로 검토한다. 즉 『조선공론』에 게재된 여성 (혹은 젠더) 관련 기사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젠더 담론의 특징적인 내용과 그 역사적 흐름을 추적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지배적인 젠더 담론이 갖는 의미를 당대 식민자 사회의 상황과 연결시켜 고찰해보겠지만 일차적인 연구범위는 기사 텍스트 분석에 국한됨을 밝혀둔다. 이는 현실적으로 당시의 젠더 이념과 실제적인 젠더 관계를 한 논문에 담기에는 연구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재조일본인 사회의 젠더 역학과 관련된 좀 더 초점을 집중한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문화연구회, 『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문, 2010.

9 Sug-In Kweon, "Japanese Female Settlers in Colonial Korea: Between the 'Benefits' and 'Constraints' of Colonial Society,"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7(2), 2014.

10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2. 일본여성의 한반도 이주와 그 특징

식민지의 젠더관계에서 서구의 제국과 비교해 일본의 두드러진 차이는 식민 본국 여성의 수가 서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일본인 이주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 이주 초기에는 (서구와는 비길 바가 아니지만) 성비 불균형이 확인했으나 이후 급속히 해소되어 1910년경이면 상당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되고, 1930년대 이후는 거의 대등한 규모를 유지했다. 서구 식민지와 비교해 식민지 조선 내 일본인 여성의 높은 성비는 무엇보다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식민통치가 안정기로 접어들어 가족 이주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 메이지유신 후 일본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남자군’(娘子軍)¹¹ 혹은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¹²으로 불린 성매매 여성은 해외이주자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이들은 종종 남성보다 앞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동아시아 각지에 형성된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 1876년 이후 각지의 개항장에 일본인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여러 경로로 도향한 ‘화류계’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은 앞다투어 유곽을 조성했고 거류민 사회의 성적 방탕은 공공연한 문제로 지적되었다.¹³

러일전쟁 이후가 되면 또한 일본인 여성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들의 성격이나 이주 형태도 이전 시기와는 차이를 보였다. 초기 단계의 이주자 중에는 (단신으로 건너온) 일본 남성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 여성이 적지 않았으나 식민지가 안정됨에 따라 가족단위 이주가 증가했고 가족의 일원으로 건너오는 여성이 많아졌다.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주 형태가 바

11 역사적으로 ‘여성으로 편성된 군대’라는 의미로 쓰였던 말이나 이 맥락에서는 19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등지로 ‘진출’했던 일본의 창부(娼婦)를 통칭한다.

12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나라로 가는 사람들’(唐行き様)이나 이 경우도 각주 11)과 마찬가지로 의미로 쓰인다.

13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표 1〉 한반도 내 일본인 인구 추이 및 성비의 변화

연도	남성	여성	합계	성비*	전 인구 대비(%)
1890	4,564	2,681	7,245	170	
1895	7,315	4,988	12,303	147	
1900	8,768	7,061	15,825	124	
1905	31,178	22,621	53,799	138	
1910	92,751	78,792	171,543	118	1.29
1915	163,012	140,647	303,659	116	1.87
1920	185,196	162,645	347,850	114	2.01
1925	221,163	203,577	424,740	109	2.28
1930	260,391	241,476	501,867	108	2.48
1935	299,754	283,663	583,417	106	2.66
1940	356,226	333,564	689,790	107	2.91
1943	382,536	376,059	758,595	102	2.86

주: * 성비는 여성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남성 인구 수.

출처: 1890~1910년까지는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要覽』, 1911.

1915~1943년은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해당 연도.

뀜에 따라 여성의 위치나 역할도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10년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중 예창기작부(藝娼妓酌婦)라 통칭되던 유흥업 종사 여성 비율이 50%에 다다른 것을 필두로, 극소수의 공무원(5명), 교사(93명),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이 잡업이나 상업, 육체노동을 비롯해 기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식민통치 후반부로 갈수록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1940년대 초반이면 공무·자유업 종사 여성이 여성유업자 중 31%를 점하게 된다(표 2 참조).

〈표 2〉 재조일본인 여성의 주요 직업(1910/1943)

1910년				1943년			
순위	직종	종사자 수	총 여성 유직자 대비 비율(%)	순위	직종	종사자 수	총 여성 유직자 대비 비율(%)
1	예창기작부 (藝娼妓酌婦)	4,093	50.18	1	상업	11,238	36.10
2	잡업	1,517	18.60	2	공무/자유업	9,654	31.01
3	상업	1,048	12.85	3	농업	4,527	14.54
4	육체노동	578	7.09	4	공업	3,414	10.97
5	농업	261	3.20	5	광산업	1,067	3.43
6	어업	213	2.61	6	교통	835	2.68
7	조산원	171	2.10	7	어업	394	1.27
당해 연도 총유업자 수		8,157	96.63	당해 연도 총유업자 수		31,129	100.00

주: *직업은 주업(主業) 기준이며, 약간 수의 기타 유업자(有業者)는 제외했음.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년, 1943년.

3. 『조선공론』 지면의 여성 담론: “식민지의 여자”, “제국의 주부”, “군국의 어머니”

서구 식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식민자 사회에서도 여성과 섹슈얼리티는 규율과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규율과 통제의 양상은 시기별로 초점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인 여성에 대한 규율화와 젠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선공론』(朝鮮公論)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았다. 『조선공론』은 『조선과 만주』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발행된 일본인을 위한 잡지 중 가장 많이 읽히던 종합잡지였다. 『조선과 만주』는 1908년부터, 『조선공론』은 1913년부터 발간된 월간지로, 전자는 1941년 1월까지, 후자는 1944년 11월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조선공론』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조선공론』이 『조선과 만주』에 비해 조선 내 배포 부수가 좀 더 많았고, 『조선과 만주』가 만주를 포괄하고 있던 것에 비해 조선만을 다루었기 때문이

다.¹⁴ 또한 “중하층 재조일본인을 대변하는 논조가 많았던”¹⁵ 『조선과 만주』에 비해 『조선공론』이 좀 더 엘리트층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도 당시 일본인사회 내의 지배적 담론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상정했다.

『조선공론』은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잡지 『태양』을 의식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종합잡지인 만큼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취재기사 외에 논문, 평론, 수필, 소설, 가벼운 읽을거리 등 다양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독부 고위 관료들의 식민통치에 관한 글, 재계와 산업계 지도자급 사람들이 조선의 산업에 대해 기고한 글, 그리고 일본 지식인층과 정치가의 조선정책에 대한 건의, 일본 정계의 동향, 식민통치 당국 여러 부서의 인물 분석, 재조일본인 지식인층의 조선정책에 대한 견해나 관련 논문, 한상룡과 이진호 등 친일적 조선 인사의 기고문, 그 외 일제강점기 사회·문화 변동과 유행을 알 수 있는 자료”¹⁶와 해외 여러 곳의 정보, 조선의 각 지역 정보와 관광지 소개, 독자 기고 등도 게재되었다.

『조선공론』의 전반적인 이념적 기조는 1913년 4월 창간호의 “일본 지식인 집단의 비평을 지향하고 식민정책을 보좌”한다는 발행 취지나 1942년 1월 폐간호¹⁷에 부치는 “국책에 순응하여 나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위해 국가 진운에 공헌”해왔다는 자평에서 볼 수 있듯이 당대의 정치 상황에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공론』 지면에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여성이나 젠더 문제를 다룬 글도 게재되었다. 그러나 기사를 포함한 필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이는 여성을 주제로 한 기사나 창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독자의 경우 그 성별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여성잡지’라는 장르가 따

14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9년 펴낸 『조선출판물 개요』에 따르면 『조선과 만주』는 조선 내 배포 부수가 930권, 『조선공론』은 1,315권이다. 『조선공론』은 일본에서도 읽혔다고 한다.

15 한일비교문화연구원, 『朝鮮公論 總目次·人名索引』, 2007, XVII쪽.

16 한일비교문화연구원, 『朝鮮公論 總目次·人名索引』, XX쪽.

17 1942년 전시체제하 총독부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해 『조선공론』은 『실업의 조선』(實業之朝鮮), 『경성잡필』(京城雜筆)과 통폐합되었고 잡지명은 『조선공론』이 유지되었다.

로 확립된 상태였고 이 여성잡지들이 해외 일본인사회에도 널리 배포되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공론』은 실질적으로 남성 독자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¹⁸ 따라서 이 잡지에 나타난 젠더 관련 담론의 양상은 당시 식민지 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남성들의 시각과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공론』의 기사와 목차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에 따라 여성과 관련된 논조가 특징적인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첫 번째 시기는 첫 호가 나온 1913년부터 1910년대 후반까지로, 이 시기는 식민지 체류 여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성적 방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부의 덕목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내조를 강조하는 흐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로, 『조선공론』 지면은 여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세 번째 시기는 대략 1933년부터 잡지가 폐간된 1940년대 초까지로, “시국”(時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전쟁 국면의 심화에 동반한 모성 역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아래에서는 『조선공론』 지면에 드러난 젠더 담론을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1) “식민지 여자”와 “제국의 주부”: 초기 식민지 사회의 젠더 담론

첫 시기는 『조선공론』 첫 호가 나온 1913년부터 1910년대 후반까지로 이 시기에는, 비록 대부분의 글이 분량도 짧고 흥미성 기사나 취재기, 여성계 단신(短信) 등이지만, 여성에 관한 글이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첫 몇 해의 주요 기사제목을 예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것 외에 예기(藝妓, 게이샤)를 필두로 한 “화류계” 관련 글은 매호마다 여러 편이 실렸고, 총독 부 고관들의 여자관계를 비롯한 가십성 기사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실명을

18 『조선공론』은 1916년 『대륙부인계』(大陸婦人界)라는 여성지를 창간했으나 1년 남짓 출간하다 폐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기사에 대한 검토는 일차적으로 한일비교문화연구센터가 펴낸 『朝鮮公論 總目次·人名索引』을 활용해 각 호별로 여성/젠더 관련 기사 제목을 뽑아내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명사부인 방문기」처럼 이 글의 논의에 중요하나 위 색인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은 개별 호의 목차를 참조했다.

〈표 3〉 『조선공론』 창간 초기 여성 관련 주요 기사

연도	여성 관련 기사
1913	새로운 여자들 * 에게 주는 글(4)/ 식민지 여자(4)/ 식민지의 아내(妻)(5)/ 조선의 여자(7)/ 여성의 새로운 의의(10)/ 명사 부인 방문기(7)
1914	경성의 여성계(3)/ '하이카라' 여자 두 명(3)/ 경성의 세 여걸(5)/ 후치자와 노예(9)/ 여성들에게 고함(9)/ 전란(戰亂)과 애국부인회(11)/ 일본여성의 전통적 정서(11)
1915	애국부인회 신년 다회(茶會)(2)/ 조선에 와 있는 여러 종류의 여자들(2)/ 조선으로 오는 여러 종류의 여자들: 떠다니는 부평초(4)/ 나는 어떻게 주부의 직책을 다하는가(6)/ 주부의 일에는 끝이 없다(6)/ 여자가 본 현대의 여자(7)/ 법정에 등장한 식민지 여자(7)/ 여자 직업 교육 문제(8)/ 자극에 미치는 경성의 여자(8)/ 여자, 여자, 불가사의한 여자 1(9)/ 여자, 여자, 불가사의한 여자 2(9)/ 과도기에 처한 여자(12)/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양처현모(12)
1916	아내의 역할이란(1)/ 식민지 여자의 기질(1)/ 식민지 여성 연구(1)/ 조선에 건너가고 싶은 여성에게 주는 글(2)/ 과학자는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2)/ 조선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희망사항(2)/ 식민지 여성 연구(2)/ 식민지 여자의 기질(2)/ 미국의 여존남비(3)/ 청년기자가 본 식민지 여자(3)/ 식민지 여자의 기분(3)/ 여자존중론: 여성들에게(4)/ 청년기자가 본 식민지 여자(4)/ 여성문제와 경성의 여성(4)/ 『대륙부인계』 첫 선(4)/ 여성문제와 식민지여자(5)/ 청년 남녀 정조문제(10)
1917	여자의 영역(6)/ 여자의 영역: 지금부터 모친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7)
1918	여성 관련 기사 없음
1919	여성 관련 기사 없음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출간 월을 가리킴.

* 실제 기사에서는 크게 구분해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일단 이 글에서는 '女'는 여자로 '婦人'은 여성으로 번역했다.

기재한 명사 부인 방문기나 유명 인사의 딸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물도 등장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다가 1916년 후반부터 여성 관련 글이 급감하여 1917~1919년 사이에는 예기 관련 글 외에는 여성에 대한 기사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이 시기 『조선공론』의 여성 관련 기사에는 식민지 체류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와 동시에 주부의 덕목에 대한 강조도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식민지 여자”(植民地の女)라는 말인데, 이는 일단 (현지 조선인이 아니라) ‘식민지로 건너간/식민지에 체재하는 일본인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독특한 뉘앙스

를 담은 용어다. 「식민지 여자」(13/4),²⁰ 「식민지 처」(13/4), 「식민지 여자의 기질」(16/1-2), 「식민지 여자의 기분」(16/3), 「청년기자가 본 식민지 여자」(16/3-4) 등의 기사는 식민지라는 환경에서 여성이 성적 타락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성과 관련된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나라한 비난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기자가 본 식민지 여자」란 글은 식민지의 여자에 대해 “특별한 용기가 있거나” 혹은 “뭔가 사정이 있어” 외지의 땅으로 건너온 여성들인데,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다름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식민지로 건너온 열기왕성한 남성들을 따라왔던 “매음부들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식민지 여자”란 표현을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사에 따르면 식민지의 (일본)여성들은 “쉽게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며 실제로 적지 않은 여성들, 특히 ‘가정부’ 중에는 일본에 본 처를 두고 온 남성들의 “현지 처”(朝鮮女房)²¹가 적지 않았다. 이 맥락에서 “조선노보”(朝鮮女坊)나 “센즈마”(鮮妻), “간즈마”(韓妻)로 불렸던 ‘조선의 처’는 조선인 ‘현지처’가 아니라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가 일본 남성의 현지 처 역할을 하는 일본 여성을 지칭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브룩스가 지적하듯²² 서구제국의 경우 초기에 식민지에 건너간 백인 남성들은 현지 여성을 공개적으로 첩으로 삼거나 현지 여성과 혼인을 한 반면, 일본의 경우 식민지 정착 초기부터 단신으로 이주한 일본 남성들의 현지 처 노릇을 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일본에서 해외로 건너간 일본 여성들이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식민지 여자에 대해 일련의 연재 글을 쓴 조선신문 기자는 “가족이 모두 함께 건너온 경우는 다르다”(16/3)고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식민지 여자라는 표현은 그 용법상 강한 도덕적 낙인을 담고 있는, 특히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 ‘단신으로 건너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

20 편의상 발행연도와 월 호를 13/4(1913년 4월 호)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다.

21 “식민지의 아내”(13/5).

22 Brooks, “Reading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

는 성적으로 방종한/타락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식민지 여자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는 경우에도 조선에 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우려와 낙인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조선에 와 있는 여러 종류의 여자들」(15/2)이란 글 아래에는 “윤락(淪落) 여성 스기야마 후데”와 “괴이한 간호부 마에야마 시카”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제목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윤락 여성과 특정 ‘직업여성’의 성적 타락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담은 글이다.

동시에 지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상대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제기되지 않아 초기 식민지 사회가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견지했던 이중규범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 3>에서는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으나 『조선공론』의 창간호부터 매호 지면에는 예기를 위시한 “화류계” 여성에 대한 온갖 글이 넘쳐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여자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글이 실린 같은 호에는 화류계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신사의 유흥거리와 놀이」(15/6), 「인기투표 순위: 경성의 예기와 기루(妓樓) 순위」(15/6), 「예기에게도 ‘진짜 사랑’이 있을까」(16/8) 등—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선공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기사 중 절대 다수는 화류계 여성과 관련된 가십성 혹은 흥밋거리 글들이다. ‘예기 랭킹’(藝妓番附) 같은 기사는 거의 매호 등장해 1915년 7월호에는 “제1회 조선 내 예기 인기투표 결과 발표”가 실리고 그다음 호에 2회, 3회 투표 결과가 이어진다.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이런 종류의 인기 순위나 평판기는 예기 외에도 여관이나 요정, 카페 등에도 적용되었고, 이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예기, 여급, 작부, 여주인 등) 개인의 우여곡절 인생사 등 가십성 기사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 ‘일반’ 여성들의 도덕 함양을 강조하고 성적 타락을 우려하는 기사와 또 다른 여성들을 간단히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버리는 태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지면에 병렬되는 것이다.²³

23 유흥업 종사 여성에 대한 재조일본인 사회의 남성중심적 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부의 미덕과 아내의 내조 역할을 찬양하는 글도 이 시기의 고정 메뉴였다. 1913년 7월 호에 게재되기 시작하여 1915년 12월 호까지 계속된 시리즈 기사인 「명사 부인 방문기」가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이 연재 기사는 기자가 정재계 명사의 부인을 방문하여 이들의 모범적인 가정생활과 가사 솜씨를 소개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²⁴ 2년 이상 계속된 이 연재물은 “(명망가) 아가씨(令嬢) 감상”이라는 또 다른 연재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는 고관과 재계 리더의 딸들이 소개되었는데, 기모노 차림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가족관계, 학력, 취미 등에 관한 소상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10대 후반인 이 아가씨들은 대부분 당시 가장 좋은 여학교로 통했던 경성제일고등여학교를 졸업했으며, 다도, 화도, 전통무용, 음악, 바느질, 요리, 그리고 간혹 외국어를 배우며 “오로지 가사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달리 말해 미래에 훌륭한 주부가 되기 위한 신부수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연재물과 함께 『조선공론』에는 가정주부의 덕목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글들도 적잖이 등장한다. 1915년 6월호에는 3명의 주부가 각각 「나는 어떻게 주부의 직책을 다 하는가」, 「주부 일에는 끝이 없다」, 「가족의 내복과 양말은 반드시 매일 밤 세탁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헌신적인 주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1916년에도 「아내의 역할이란」(16/1), 「배우자 선택의 기준」(16/2), 「조선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희망사항」(16/2) 등 비슷한 제목의 글들이 게재되어 남편과 국가에 대한 여성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1910년대에 『조선공론』에 등장했던 이런 글들은 식민자 사회가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이주 초기단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공식적인 강제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이주가 급증하면서 식

24 「명사 부인 방문기」에 대해 1915년 3월부터는 「명사」가 직접 쓴 ‘우리 마누라 이야기’라는 코너도 생겼다.

민자 사회의 규모가 급팽창했다. 이전 단계에 비해 관료나 군인, 회사원 등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의 주변부에서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한반도로 넘어왔다. 또한 살펴본 것처럼 여성도 대거 건너왔다. 따라서 통치 당국이나 일본인 사회 리더의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와 규율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이주자 중에 “배경이 의심스럽”거나 “타락의 길”로 빠지는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던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식민통치의 안정화 과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식민지 여자”의 타락을 막고 훌륭한 “제국의 주부”를 키우는 것은 식민자 사회의 안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제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기에 ‘여성’은 공동체 전체의 관심거리이자 우려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덕적 타락이나 성적 문란이라는 잣대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양성에 대해 강한 이중규범이 존재했다. 식민지 여자의 성적 타락에 대한 우려와 지배적 규범을 위반한 여성에 대한 적나라한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은 성적 행동과 관련해 공동체의 의심이나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오히려 화류계 경험은 ‘신사’로서의 소양으로 묘사될 정도였다.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지면이 “화류계” 관련 기사로 채워졌고 온갖 자극적인 제목만 보면 “중산층 지식인을 위한 잡지”라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집단도 양분화되어 한편으로는 여성적 도덕을 함양하고 제국의 기획을 위해 (내조에) 힘써야 하는 보통의 여성들과, 제국의 팽창에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을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사고가 팽배했다.

1917년에 접어들면서 『조선공론』 지면에서는 여성 관련 기사가 급감하여 1919년까지 예기 관련 글과 스캔들 기사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여성 관련 글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우선 1916년 3월 『대륙부인계』가 창간되면서 『조선공론』에서 별도로 여성 관련 글을 신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916년 『조선공론』은 “『조선공론』의 신부지(花嫁誌)”를 표방하며 『대륙부인계』라는 여성지를 창간한다. 『조선공론』 1916년 4월호에는 『대륙부인

계』가 창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목차가 소개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목차가 소개되다가 1917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대륙부인계』에 대한 기사는 더는 발견되지 않는다. 1년 남짓 출간되다가 폐간된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정보를 보면 『조선공론』의 필자와 많이 겹치며 보수적인 느낌의 기사 제목도 많지만 현재 이 잡지 자체나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 구체적인 모습은 알기 힘들다. 각 호의 목차를 보면 “식민지 여자” 식의 표현은 더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여성 문제를 진단하거나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계몽적인 제목의 글과 육아와 자녀교육, 위생, 가사도우미 사용법 등 실용적인 조언을 담은 제목들이 눈에 띈다.

2) 재조일본인 사회에도 ‘신여성’ ‘모가’²⁵가 존재했을까?:

1920년대~1930년대 초

『조선공론』의 지면은 1920년대를 통틀어 여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하고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유흥가 여성들에 관한 흥밋거리 글 말고는 여성 일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매우 적어서 1년 동안 한 편에서 세 편 정도도 전무한 해도 있다. 반면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예기를 중심으로 한 화류계 여성과 관련된 글들은 계속 실렸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카페 여급과 여배우에 대한 글들이 더해졌다. 1920년에서 1932년까지 게재된 글 중 화류계 관련 기사거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여성 관련 주제를 다룬 것은 30개를 조금 넘는 정도다. 그중 3분의 1은 여성참정권 문제를 다룬 것이다(표 4 참조).

참정권 문제는 1920년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관련 쟁점이었다. 1919년 설립된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는 여성참정권 획득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운동을 전개했으나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1928년 치러진 일본 최초의 보통선거에서는 25세 이상의 남성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²⁶ 이런 맥

25 ‘모던 걸’(Modern Girls)의 일본식 표기.

26 総合女性史研究会, 『日本女性の歴史』, 角川選書, 1993.

〈표 4〉 1920~1930년대 초 『조선공론』의 여성 관련 주요 기사

연도	여성 일반 관련 기사	유희가/화류계 관련
1920	대전(大戰) 후의 여성문제(1)/ 사회개조와 여자교육(8)/ 노동문제와 여성(9)	월별 예기 랭킹 포함, 예기 관련 글 20편
1921	여성참정권까지(3)/ 여성 직업 문제와 참정권 문제(4)/ 여성교육에 대해(4)/ 사회개조와 여성(6)/ 여성의 정신적 조력(9)	월별 예기 랭킹 포함, 예기 관련 글 26편
1922	신시대를 맞는 여성의 각오(3)/ 여성 체육문제(7)/ 중류여성이 자각할 때(11)	월별 예기 랭킹 포함, 예기 관련 글 24편
1923	폐창운동과 금주산업(2)	예기 관련 글 1편 전국 여관과 가정부(女中) 평판기, 여배우 평판기 등
1924	다시 한번 폐창에 대한 생각(8)/ 여성 계급의식의 발달과 사회적 요구(11)	카페 야화, 예기 글 16편 여배우 이야기, 전화교환원 이야기
1925	-	예기 관련 글 14편, 카페 순례기 6편, 카페 여급 이야기 1편
1926	-	예기 글 1편, 카페 야화 6편, 여배우 이야기 1편
1927	국운의 진전과 여성의 각성(2)	월별 예기 랭킹 외에 예기 관련 글 없음, 카페 야화 2편
1928	직업여성의 보호(4)/ 여성 입장에서 본 보통선거(5)/ 여성교육 문제(12)	월별 예기 랭킹 12회, 화류계 주마등 시리즈 5회, 카페 야화 1편
1929	정계 정화와 여성선거권(婦選)(1)/ 조선에 여자대학이 필요한가(2)/ 여성선거권에 대해(3)/ 여자참정권 문제(3)/ 부인공민권위원회를 경고하자(4)/ 일본여성론(7)/ 여성선거권과 신내각(8)	월별 예기 랭킹 12회, 조선인 매춘부 1편
1930	여성참정권문제는 아직 이르다(7)/ 여성참정권 문제(7)/ 결혼생활과 이상적 여성(3)/ 여성과 독서(8)/ 여성문제(9) / 새로운 여성론 해부(10)	월별 예기 랭킹, 화류계 이야기 6회, 카페 글 2편, 여급 글 1회
1931	여성참정권 문제(3)/ 부인 공민권 문제 각인 각론(4)/ 공창제 폐지의 요지(4)	예기 랭킹 사라짐
1932	-	예기 및 화류계 글 3편, 카페 글 6편

락에서 볼 때 1920년대 초와 후반부에 『조선공론』 지면에 여성참정권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일단 본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공론』이 여성과 관련된 당대의 주요 쟁점을 모두 피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조선공론』은 여성참정권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개진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 가장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부터, 왜 정부가 당장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유보적 입장의 고위 관료, 여성참정권 운동가의 호소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게재하고 있다. 나아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자 대부분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저자 구성은 『조선공론』에 참정권보다 더 많은 기사가 실리고 매우 뜨거운 관심거리로 다루었던 예기 관련 쟁점들, 예를 들어 예기들에 대한 성병 검사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1916년 7월호에 게재된 “예기 검징(檢懲) 문제” 특집에는 동양척식회사 이사, 조선은행 이사, 경성통신 사장, 제일은행 경성지점장, 경무총장, 목사,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장 등이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참정권 문제를 제외하고 1920년대에 실린 10여 개의 다른 글은 여성의 고등교육 문제, 여성 직업 문제, 중산층 여성의 자각과 사회적 역할, 폐창(廢娼) 문제, 직업여성 보호, 결혼생활과 이상적 여성상 등을 다루고 있다. 어떤 필자는 남녀공학이나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주장하는 등 한층 진보적인 생각을 펼치기도 하고, 다른 저자는 여성의 ‘본래’ 사명은 가족을 돌보는 데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굽히지 않는다. 동시에 당대 일본과 한반도에서 ‘뜨거운 단어’였던 ‘신여성’과 ‘모가’란 표현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어찌되었건 여성과 관련해 많은 기사가 게재되었던 1910년대와 비교해, 유흥가 여성과 관련된 많은 글을 제외하면 지면에서 ‘여성 문제’ 자체의 가시성이 매우 떨어졌다.

필자는 중산층 재조일본인 여성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이 식민자라는 지위 덕분에 1920년대 이후 한껏 진전된 근대성의 수혜자로서(교육, 직업 기회, 가정생활, 소비 영역 등에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식민자 사회의 보수적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편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여성으로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음을 분석한 바 있다.²⁷ 1920년대 『조선공론』의 지면은 이러한 흐름, 즉 메이지 일본이 여성에 대해 부여한 새로운 역할(편의상 ‘근대적 소양을 갖춘 양처현모’)이 식민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점이었던 점과 식민자 사회 일반의 보수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1929년 2월 호에 실린 「조선에도 여자대학이 필요한가?」라는 글은 이런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위의 참정권 관련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조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자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시에 이 글은 당시의 근대적 교육의 혜택이 여성들에게도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여자대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그런 필요성에 대해 『조선공론』이 대변하는 식민자 사회의 보수적 집단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음을 추측하게 한다.²⁸

특히 1920년대는 이전 시기에 비해 식민자 사회가 안정되었고 아직 전시 상황에 접어들지도 않은 단계였다. ‘여성 문제’와 관련해보자면, 일본에서는 1910년대 초기의 신여성 현상에 촉발되어 1920년대 중반부터 ‘모가’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주체성, 그리고 이들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담론의 장에 등장했던 시기다.²⁹ 심지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도, 비록 일정한 시간차는 있었지만 1920년대와 30년대를 통해 신여성에 대한 담론과 논쟁이 “과잉”될 정도로 진행되면서³⁰ 한일 양 사회

27 Kweon, “Japanese Female Settlers in Colonial Korea.”

28 메이지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고양되기 시작한 내셔널리즘의 분위기 속에 여성의 성 역할과 관련해 보수적 방향으로 ‘선화’했으며 여성의 교육 목표는 근대화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양처현모를 양성하는 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소양과 덕목을 키우는 것에 더해 장차 가정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근대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즉, 이 시기의 양처현모는 ‘전통적인’ 이상형이 아니라 근대국가에 걸맞은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 모델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牟田和恵, 「新しい女・モガ・良妻賢母: 近代日本の女性像のコンフィギュレーション」, 伊藤るり, 坂元ひろ子, タニ・バーロウ 編, 『モダンガールと殖民地的近代: 東アジアにおける帝国・資本・ジェンダー』, 岩波書店, 2010.

29 伊藤るり, 坂元ひろ子, タニ・バーロウ 編, 『モダンガールと殖民地的近代』.

30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8.

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존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모색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공론』은 여성참정권과 관련해서만 두세 차례 지면을 할애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침묵했다. 흥미롭게도 카페 여급이나 여배우 등 192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들에 관한 흥미성 기사는 192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단골메뉴가 되었으나 당대의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또 다른 용어인 ‘신여성’이나 ‘모가’라는 용어 자체를 『조선공론』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3) “군국의 어머니”: 1933년 무렵~1944년 폐간까지

이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 심화된 전시 상황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난 단계다. 1933년에 접어들면 『조선공론』의 여성 관련 기사 논조가 급속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기, 화류계, 카페, 여급 등의 단어 자체가 지면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1933년 지면에서는 이런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한 편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도 ‘폐창’이나 ‘공창지역 위생대책’ 식의 문구를 제외하고는 화류계 관련 단어들이 거의 흔적을 감추어, 적어도 잡지 편집 면에서는 1933년부터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확연해진다. 물론 남성의 시점에서 쓴 여성 관련 흥미거리 기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사가 등장할 경우에도 유흥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식의 제목을 뽑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5년과 1936년에는 예외적으로 카페, 여급, 유곽 등의 이야기가 일시적으로 등장하는데, 아마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의 일시적인 분위기 완화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1933년경부터 “시국”(時局)과 “국책”이란 표현이 들어간 기사 제목이 급속히 늘어났고 1930년대를 통해 만주, 만몽(滿蒙), 조선 각지 현황, 정치경제 관련 기사, 자원(資源) 문제 등을 다룬 기사가 폭증했다. 1934년 4월 경부터는 “비상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비상시 여성은」, 「비상시 황군의 병기 운반」, 「비상시 일본인의 각오」, 「비상시의 윤리 운동」, 「우리 국민의 각오」, 「비상시의 국방문제」 등 국민으로서의 각오를 촉구하고 도덕적 규율을 강조하는 제목이 12월호까지 지면을 채우고 있다. 1935년

이후에는 “황도”, “일본정신”, “국방”, “방공과 국민의 각오”, “전시상황”, “재정 위기” 등의 제목이, 1938년 이후에는 “각오”, “총동원”, “정신력”, “물자수급”, “병참기지”, “성스러운 과업(聖業)”, “결전”, “징병제”, “황민화”, “방공”, “위문주머니”, “성전(聖戰)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³¹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일본사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조선공론』 지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나 젠더와 관련된 쟁점을 취급하는 글은 매우 축소되었으며, 이후 등장하는 여성 관련 글들은 시국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장려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바뀌어갔다. 이제 주부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제목에 “어머니의 위치”, “모친의 부주의”, “어머니의 책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자세”, “모친의 행위”, “어머니의 마음”, “군국의 어머니” 등이 등장했고, 1910년대와 같은 좋은 아내나 주부의 역할에 대한 찬양은 거의 사라졌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여성과 관련된 기사 제목은 여성에 대한 훈화와 계몽을 뚜렷하게 담은 것으로, 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국가에 대한 여성의 책무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1936년에 등장한 두 개의 자극적인 제목—「직업부인이여, 가정으로 돌아오라」(36/8),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라」(36/9)—은 어머니 역할을 소홀히 할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여성에 대한 당시의 노골적인 비난 분위기를 잘 예시해준다. “국가적 모성”이란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1930~1940년대 전시 일본에서는 낳고 기르는 성으로서 여성의 모성도 적극적인 동원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살펴본 『조선공론』의 지면도 이런 상황과 공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²

31 전술했듯이 『조선공론』은 1942년 『조선의 실업』, 『경성잡필』과 통합되면서 1942년 2월호부터 개권(改卷)호로 발간되었다. 1944년 11월 호(통권 380호)가 폐간호로 추정된다.

32 미야케는, 1930~1940년대 일본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국가의 관심 증가와 모성 중심의 가족관으로의 이행을 “쇼와관 가족-국가관”으로 명명한 바 있다. 미야케는 전쟁 관련 정책에 여론론자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던 중요 배경 중 하나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공헌에 대한 (최초의) 공적 인정에서 찾고 있다. Yoshiko Miyake, “Doubling Expectations: Motherhood and Women’s Factory Work Under State Management in Japan in the 1930s and 1940s,” in Gail Lee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표 5〉 1933~1944년 사이 『조선공론』의 여성 관련 주요 기사

연도	여성 관련 기사
1933	불량 청소년 자녀의 타락과정과 방지책(2)/ 여성비판: 어머니의 위치(8)
1934	모친의 부주의에서 생기는 어린이 중치(1)/ 비상시 여성은 (3)/ 혼인적령기 여성 과잉 (3)/ 직업여성의 의심스러운 생활(7)/ 부부의 길(8)/ 공창 폐지의 진의와 폐지 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8)/ 공창폐지의 급무(10)/ 소위 공창폐지 시비(10)/ 위기선상을 가는 현대 여성들에게(11)/ 혈족가족, 권하고 싶지 않은 이유(11)/ 폐창 단행 일본 직전에(11)
1935	자녀의 성교육과 어머니의 책무(1)/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친의 정신수양(1)/ 매소부(實笑婦)의 위생대책(2)/ 유전과 결혼(2)/ 폐창은 어디로 가나(3)/ 여성노동자의 건강장애(3)/ 비상시 여성의 각오(4)/ 자력 갱생과 여성: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5)/ 제국으로 유학하는 자녀 훈화 방침(5)/ 자녀에게 중대 영향을 끼치는 모친의 행위(6)/ 부부의 길이란 무엇인가(7)
1936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5)/ 직업부인이여 가정으로 돌아오라(8)/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라(9)
1937	여자교육과 직업(3)/ 결혼과 가족제도(4)
1938	-
1939	건강한 기운, 군국의 어머니(1)/ 혼기의 딸을 둔 부모에게(1)/ 요즘 아가씨들은 재봉 일을 싫어한다(6)/ 근대 여성의 남성화(7)/ 가정생활과 여성의 길(8)
1940	경박 풍조를 절멸하자: 견실 여성의 활약을 기대한다(1)/ 구미를 모방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퇴화한다(8)/ 군국의 어머니와 미국의 어머니(11)
1941	일본 여성의 길(日本婦道)
1942	-
1943	주부의 각성을 원하며(8)
1944	-

한편 1934년 말에서 1935년에 걸쳐 근친결혼,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글이 연이어 실려 육아와 돌봄뿐만 아니라 낳는 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혈족가족, 권하고 싶지 않은 이유」(34/11),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친의 정신수양」(35/1), 「유전과 결혼」(35/2),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은 피」(35/3) 등은 모두 유전학적 지식이나 우생학적 관심에 근거해 재생산하는 당사자로서 여성의 ‘생물학적’ 책임을 환기시킨다. 1934년 4월부터 1935년 5월 호까지는 가정란, 혹은 “홈섹션”을 따로 두어 청소, 부엌 위생, 음식물 손질법, 요리, 영양, 질병, 화장과 피부 관리, 여성의 마음가짐 등 기사와 전반적인 생활 개선과 관련된

글이 대여섯 편씩 실렸다. 이들은 주부의 역할 중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가사 전반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1910년도처럼 제국의 기획에 힘쓰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던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4. 나오기: 재조일본인 사회의 식민 질서와 젠더 정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공론』 지면은 여성이나 젠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1910년대 식민사회가 형성되던 초기의 지배적 논조는 여성의 성적 방종에 대한 강한 경계와 제국의 기획에 헌신하는 남성을 내조하는 좋은 아내(“良妻”)의 역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에게 직접 훈계를 하거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모범적인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해외 일본인 사회의 ‘성적 문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곤 했으나, 흥미롭게도 『조선공론』의 우려와 비난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향해 있었다. 한편 식민사회가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1920년대에는 여성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참정권처럼 여성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룰 경우에도 주로 본국에서 전개되는 논쟁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머물고 어느 쪽이든 독자적인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없다.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 이후가 되면 “시국”에 부응하는 여성의 기여,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편, “홈섹션”을 따로 두어 합리적인 가사와 생활 개선을 위한 교화 노력도 시도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적 여성”의 도덕에 대한 강조와 함께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등장한다.

젠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해외 식민자 사회의 특징은 다른 제국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때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각지의 일본인 거류민 사회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 일본인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더 많거나, 여성 유업자 중 유흥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³³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조일본인 사회의 초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식민통치가 시작되고 거류민 사회가 일시적인 뜨내기 집단이 아니라 식민지에 정착할 생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채워짐에 따라 공동체의 도덕적 규율에 대한 필요가 절박해졌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1910년대의 『조선공론』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 제국과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지점은 일본의 경우 성적 규범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여성에게만 향했다는 점이다. 물론 서양의 경우도 초창기 백인 식민자 사회의 극단적인 성비불균형 상황에서는 현지 여성과의 성적 접촉이 ‘필요악’으로 간주되고 장려되기도 했지만, 백인 여성이 대거 유입된 이후에는 (남성을 포함한) 백인의 성적/도덕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종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³⁴ 반면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조선공론』의 지면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비판했지만 남성이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남성의 유흥을 위한 정보나 화류계의 흥밋거리 이야기가 넘쳐났다. 1916년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공창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정책자들은 ‘특정’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공익’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거나 편리한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했는데,³⁵ 이런 남성 중심적인 성규범이 당시 재조일본인 사회에 팽배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정’ 범주의 여성에는 일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일본 제국에도 식민지에서의 젠더 문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메이지 일본이 여성

33 加納実紀代, 「満州と女たち」, 『近代日本と植民地 5: 膨脹する帝国の人流』, 岩波書店, 1993; Brooks, "Reading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

34 Stoler,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ser."

35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에게 부여한 역할은 ‘양치현모’였으며, 가족-국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주부와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사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국가적 기획으로 수립되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사명으로 강조되었다.³⁶ 서구의 식민지와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경우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는 일본인의 성비가 상당히 대등하여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젠더 역할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 예컨대 조선에서의 ‘내지인’(內地人) 교육과 관련해 총독부의 공식 입장은 “본국과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교육의 취지, 수업 연한, 교과, 편제 등 대체로 동일”³⁷하다는 것이었다. 여성중등교육의 취지 역시 일본의 근대 여성교육이 추구해온 양치현모 교육 취지를 반복하며 “정숙”, “근검”의 미덕과 특히 “주부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³⁸ 앞서 살펴본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이어진 『조선공론』의 「명사 부인 방문기」나 「(명망가) 아가씨 감상」 시리즈물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된 여성적 미덕의 구체적인 체현자를 가시화하고 장래의 모범적 주부를 교화하려던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까지 『조선공론』이 보인 모습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1920년대는 근대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주의 문화운동과 참정권을 비롯한 여성의 공적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추진되어온 근대화의 결과 도시문화가 발달하고 일부 여성은 최초의 ‘직업부인’이 되어 근대화된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³⁹ 이런 분위기 속에 “신여성”, “모가”(modern girl)로 상징되는 것처럼 ‘여성’과/

36 권숙인, 「일본제국시대(1868~1945)의 여성의 지위: 정치적 보수주의와 ‘양치현모’ 이념의 대두」, 『한국문화인류학』 30권 1호, 1997.

37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朝鮮教育要覽』,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1卷, 龍溪書舍, 1915, 91쪽.

38 예를 들어 <조선공립고등여학교규칙> 제7조는 고등여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 “1) 정숙의 덕을 배양하고 근검을 미덕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언어작법과 동작에 있어서 온화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2)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배양토록 하면서, 가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것을 주의할 것. 특히 주부로서 필요한 사항들은 적절히 지도할 것. 3) 체육 과목은 지와 덕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教育要覽』, 92쪽.

39 Miriam Silverberg, “The Modern Girl as Militant,” in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의 ‘근대’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과 모색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식민지배하의 조선사회에서도 반복되었다.⁴⁰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1920년대 『조선공론』의 ‘침묵’은 직접적으로는 보수적인 남성 편집자 및 필자들의 회피로,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일본인 식민자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여성은 ‘식민자’라는 지위 덕분에 교육이나 취업, 가정생활 등에서 본국의 여성에 비해 더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조일본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은 여성의 일차적 목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다고 보았고, 여성은 종종 이러한 젠더 규범에 의해 부정적인 시선과 강한 비판에 노출되기도 했다.⁴¹ 1934년 이후의 지면은 전시 상황과 맞물리며 모성의 강조와 여성의 후방 지원 역할에 대한 훈계가 강화되었고, 이는 당대 본국에서 진행된 전시하 여성동원의 양태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재조일본인 사회의 젠더 관계나 여성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 본격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본 연구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지배적인 여성/젠더 담론을 살펴보기 위한 한 시도로 『조선공론』 지면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분석의 한계는 자명해서, 텍스트상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당대의 정치사회적 컨텍스트, 즉 당시 재조일본인 사회 내의 실질적인 젠더 역학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일본 본국의 젠더 지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와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1920년대 여성담론의 부재/부족을 식민자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성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쳤지만, 실제로 당시 재조일본인 사회는 본국에 비해 더 보수적이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심화

40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41 Kweon, “Japanese Female Settlers in Colonial Korea.”

되는 전시 상황 속에서 일본 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빗겨나 있었던 한반도의 일본인 사회에서 여성의 후방 지원 활동은 어떠했는지, 전시 국면의 심화로 인한 실질적인 젠더 관계의 변화는 본국과 어떻게 다르거나 유사했는지 등도 향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